

가스용품 시공 시 밸브 등 ‘KC’ 각인표시 확인 필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공감리 검사과정에서 국가에너지 기간시설인 LNG인수기지에 가스배관용 밸브 전량이 위조각인된 사실을 발견하고 전량 재시공에 들어갔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공문을 보내 “가스시공 회원사가 가스시설 시공 시 밸브 등 ‘KC’ 각인 대상 가스용품의 검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의 유통 및 설치가 근절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스용품은 현재 각인(刻印) 또는 검사증명서(필증)를 부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배관용 밸브나 용기밸브(KS 제외),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 정압기용 필터, 매물형 정압기, 로딩암,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이음쇠 등에는 5mm 크기의 각인을 하며 압력조정기, 콕, 콕카플러, 연소기, 연료전지, 고압호스 등은 크기가 다른 검사증명서를 부착한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나사식 밸브의 ‘KC’ 각인은 희미하게 표시돼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인 위치도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제품들이 많다. 더 큰 문제는 ‘KC’ 각인의 도안이 공개되어 있어 일반 공구상 등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등의 시설검사 시 밸브각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제품검사 여부를 표시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검사원이 밸브 제조사 및 제조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에서 재확인토록 검사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시공자 단체 및 공급자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시공단계에서 미검사품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시공 회원사가 가스용품 구입 시 제품 제조사로부터 가스용품 검사 목록표를 수령하여 확인할 것과 시공현장에서 각인 등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여 검사품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